



이 보 형

- 우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심리학, 경영학, 철학 전공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7회(2018년)변호사시험 합격
- 현) 법무부 공익법무관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7회 변호사시험을 치렀던 이보형이라고 합니다. 지금쯤 제8회 변호사시험을 50일 내외로 앞두고 공부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변시를 치룬 지 수 개월이 지났지만, D-50에 느꼈던 두려움과 초조함 그리고 내 자신의 공부 방법이 맞는지 등 복합적이었던 심정은 아직도 생생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하며 부족하지만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이하에서 변호사시험 50일 즈음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공부 방식 및 팁을 제 경험을 토대로 조심스럽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지나 변호사 시험 하루 전이 되고, 그날 밤 ‘정말 50일 전으로만 돌아가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취침하셨는데, 일어나보니 그 소원이 이뤄졌다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I. D-50에 기억하시면 좋을 3가지

많은 분들이 『기본서 파』, 『핸드북 파』, 『객관식 파』 등 다양한 학습 유형 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비 해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유형이든 전 과목이 2회독 이상은 되어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하셔도 이 세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최대한 단순한 것을, 최대한 반복하는 것 입니다. 물론 여기서 어디서부터가 공부해도 되는 '최대한 단순한 것' 이라고 물으신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중 가장 단순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학습 유형으로 준비를 해오셨든 학교에서 받은 자료, 인강이나 학원에서 받은 자료, 따로 정리하고 있는 자료 등 자료가 굉장히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나로 종합하여 자신만의 자료로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혹여 정리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될 경우 멘붕에 빠지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간 여러 자료를 동시에 보시면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신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최소한의 자료만 선택해 반복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험상 선택할 자료가 가장 효율적으로 변호사시험에 나올만한 내용 대부분 담고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경우가 경험상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내용만 반복하기에는 너무 부실한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 자료조차 나중에는 버거울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걱정이 되시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중 그나마 '가장 많이 보셨던 자료' 혹은 '가장 단순한 자료' 만을 선택해서 반복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객관식 과』 이어서 '유니언 객관식 기출문제집' 및 '아우라 사례형 기출문제집 답안', '교수님이 정리 해주신 최신 판례 3개년', 2017년 6모, 8모, 10모만을 선택하여 반복하여 보았고, 덕분에 변시 직전까지 변시 기출은 5번, 모의 기출은 3번 반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반복해 두면, 적어도 익숙한 책이 있다는 생각에 다른 학우들이 추천하는 핸드북이나 선배님들의 정리 자료로 갈아타야 하는지 걱

정될 시기에라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늦었다." 는 것입니다. 시험시간 분배에서도 적용되는 말이지만, 분명, 계획한 시간이 지나면 다음 내용이라도 늦지 않기 위해 넘어가야만 합니다. 변호사시험이 50일 남짓 남게 되면, 7법 및 선택법을 기간을 나누어서 공부하게 될 가능성이 큼니다. 예를 들면, 대략적으로 7법은 각 3일, 선택법 1일로 1회독(총 22일), 7법 각 2일 및 선택법 1일로 2회독(총 15일), 7법 각 1일 및 선택법 0.5일로 3회독(총 7.5일)으로 잡고, 5.5일 정도를 여유 시간으로 계획해 두는 방식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기한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학교 과제가 있을 수 있고, 몸이 아픈 경우도 있고, 갑자기 부족한 파트에 대해서 인강 등으로 보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밀리다 보면 어떤 과목은 전혀 보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특히 선택과목을 전혀 공부하지 않게 되는 문제도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변시 3일차에 처음 선택법을 펴보게 되는 등 과락의 위험성까지도 직시하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못한 부분은 다음 회독 차에 본다고 생각하고 우선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훑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상법 1회독 차에 보지 못한 어음, 수표법은 우선 넘어간 뒤 상법 2회독 차에 제일 먼저 보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꽤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번째는, "기록형은 기출문제를 적어도 일주일에 1번은 실전처럼 풀어 보아야 한다." 입니다. 확실히 실전처럼 연습하기 위한 시간을 내는 것은 10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주위에서 객관식은 누

구나 실전처럼 푸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사례형과 기록형은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객관식은 실전처럼 유니언 기출문제집을 반복해서 풀고, 사례형은 아우라 답안 형식 틀을 외웠으며, 기록형은 스테디를 꾸려서 일주일에 1번 정도는 실전처럼 푸는 방식으로 공부했는데, 부족한 시간 속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례형은 경험상 객관식 공부만으로도 내용면에서 부족함이 없었고, 실전처럼 풀지 않더라도 모범 답안의 틀을 외우는 것으로도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록형의 경우, 계속해서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간 분배 및 메모 방식에 익숙해야만 할 것 같았고, 실제로 주 1회 연습을 했던 것을 통해 시험 때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II. 맺으며

약 50일 간의 일정 뒤 변호사시험 당일에 기억하면 좋을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2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모르겠으면 고민하지 말고 넘어간다.” 입니다. 변호사시험은 최대한 많이 맞아야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계속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배점이 있는 부분을 최대한 건드리는 것이 관건이라는 생각으로 객관식이든, 사례형이든, 기록형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넘어가야 합니다. 객관

식은 시간이 부족해 뒤에 풀지 못한 문제만 없게 만들어도 성공이고, 사례형과 기록형은 전부 건드리기만 해도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분명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내가 못봤으면 다른 사람도 다 못봤다.” 입니다. 변호사시험 도중에 자신의 답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 및 잘 알고 있었는데 너무 아쉽게 온전한 답안을 작성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후 시험에 크게 영향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못 봤으면 다른 사람들은 더 못 봤을 가능성도 많고, 실제로도 변시 성적이 나오면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어려웠으니 표준점수가 잘 나오겠거니!” 하는 마음가짐으로 나머지 시험을 치루시면 실제로 해당 시험은 물론 나머지 시험의 표준점수도 더 잘 나오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변호사 시험에서 절반이나 통과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밖에 못 붙는 쉽지 않은 시험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50일 남짓한 시간은 정말 부족한 시간이지만 변호사 시험 하루 전과 비교해보았을 때는 꽤 많은 시간입니다. 지금 예상하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드린 부족한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신 시간을 빛내 드릴 수 있는 작은 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